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 『사상계』를 중심으로

이선옥**

차례

1. 머리말
2. 『사상계』, 무성적 잡지의 젠더적 접근
3. 사상계의 과학주의 - 민족 그리고 기술결정론
4.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 - 내면화된 젠더위계
5. 마무리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지성사를 대표하는 잡지 『사상계』의 이념적 특징을 과학주의로 분석하고, 과학주의와 젠더 재구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연구는 냉전과 군사주의, 새마을운동과 생산성 담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한 박정희프로젝트의 생산성담론이 중심이념으로 삼았던 가치를 과학주의로 추출하였다. 기술민족주의라 규정할 수 있는 이 시기의 과학주의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마술적 조력자로 기능하였으며, 기술이 모든 이들에게 선이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술결정론은 후에 미소군비경쟁과 과학기술 발전의 정치적 권력화를 비판한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 기술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4638)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또한 기술이 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기술결정론은 『사상계』에 한정된 이념적 특징이 아니라 근대화프로젝트의 핵심요소로 강조되었으며, 핵무기와 핵발전에 대한 열망과 함께 부국강병의 상징적 기호로 사용되었다. 민족이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개척정신이요 과학적 방법이라는 장준하의 사상계 권두언처럼 과학주의는 민족지성과 국가정책이 맞물리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국가프로젝트로 속화된 기술민족주의로 진행되면서 이상적 인간상을 기계적 남성성으로 만들어내는 생산성 담론으로 변화해간다. 지금까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가 인간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분석 또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산성 담론의 기계적 남성성이 왜 한국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속화된 과학주의가 기계적 남성성의 내적 논리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상계』는 이상적 인간상을 과학주의적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편적 인간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여성 역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무성적 매체라 할 수 있는 이 잡지의 내면화된 젠더 구성은 전통적인 성별역할론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계』 전문위원인 김기석의 글이나 이 잡지에 수록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지성보다는 과잉된 감정을 여성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적 남성성과 감정 과잉의 여성성에 대한 이분법은 과학주의 담론을 통해 그 내적 논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별개의 개념이다. 과학이 사실에 대한 성찰적 지식이라면 과학주의는 과학적 지식을 신화화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화화된 믿음은 인간에 대한 성찰보다는 민족부흥을 위한 생산적 인간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 때문에 『사상계』의 젠더 구성은 성찰 없이 기계적 남성성과 감정 과잉의 여성성으로 이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1960년대, 사상계, 과학주의, 기술민족주의, 젠더

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대표적인 교양잡지 『사상계』(1953.4~1970.5)에 나타난 과학주의와 관련하여 젠더 재배치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1960년대 연구는 냉전과 군사주의, 새마을운동과 생산성 담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한 박정희프로젝트의 생산성담론이 중심이념으로 삼았던 가치를 과학주의로 추출하였다. 기술민족주의라 규정할 수 있는 이 시기의 과학주의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미술적 조력자로 기능하였으며, 기술이 모든 이들에게 선이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추출하고 실증하는 작업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며 기술결정론이 만들어내는 남성성/여성성의 젠더 구성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과학주의는 이 잡지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인데 지금까지는 몇 편의 과학사 연구자들의 논문이 나와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위기담론으로서의 과학주의와 여성성’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이다. 1900년대부터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안담론으로 등장한 주요담론을 꼽으라면 그 하나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논의이다. 식민지, 전쟁, 개발도상국을 거치는 격동기와 급속한 근대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강박증적 지향성을 낳게 된다.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위기의 해결책이 과학주의로 신비화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진화론과 사회진화론, 식민지시기의 우생학, 196,70년대 기술민족주의 등 각 시대마다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과학담론은 민족의 위기마다 부국강병과 민족의 근대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띄고 논의되었다. 그 때문에 과학담론은 지배담론의 전면적 재배치 즉 사회적 가치의 재배열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젠더의 남성성/여성성 요소 사이의 위치 변화나 배제와 내포 등등을 과학주의 담론과 연결지어 설명할 때 젠더 재배치의 정치적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두 차례에 걸친 일제말기 친일문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회

진화론과 우생학이 식민지민들의 열등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면서 또한 여성성을 감성성으로 연결하고, 다시 번덕스러움, 무책임성과 연결지어 식민지 남성을 여성화시키고 열등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¹⁾ 과학주의가 인간성에 대한 가치 요소들을 위계화하는 일종의 이념적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식민지 이후 전후 한국사회의 재구성에서는 과학주의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재배치하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를 각 시대별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여성성²⁾ 재구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시켜갈 예정이다. 1900년대의 사회진화론과 애국계몽기 공론장에서의 여성 호명 방식, 193,40년대의 우생학 이론과 총후부인의 여성성의 특징, 1960년대 기술민족주의와 감성적 여성성의 재배치 등이 과학주의 담론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상계』의 과학주의는 전후의 가치전복과 혼란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이념적 배경이 된다. 특히 미국문화의 유입과 서구문명에 대한 전면적 수용이 급물살을 타고 있던 이 시기에 이성/감성, 합리/비합리, 서구/동양 등의 사회적 가치를 재배치하는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푸코의 지식 권력이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주의’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 시기 『사상계』가 주장했던 과학주의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젠더 재배치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은 이 시기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1)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출판사, 2003(『우생학과 제국주의의 성정치』 참조).

2) 지배담론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프레데릭 제임슨의 우세종 개념이 주로 사용되지만,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남성성과 연결지어 지배담론의 형성과 담론간의 경쟁, 지배, 복종의 협상관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개념이다. 남성성 연구자 코넬의 ‘Hegemonic masculinity’가 국내에서 주로 소개되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여성성 개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R.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69쪽.)

2. 『사상계』, 무성적 잡지의 젠더적 접근

과학, 기술 등과 관련된 담론은 현재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범주이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선 큰 틀에서 과학적 지식에서 근거를 찾고 과학적 방법을 최고의 인식 방법으로 삼는 이념이라는 범박한 사전적 지식에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황희숙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주의(scientism)는 18세기 계몽운동, 콩트 이후의 논리실증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출현한다. 과학의 기술적 성공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며 과학적 합리성을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자나 비과학자 모두 과학적 지식이 실제보다 더 확실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과학의 신화화를 사상가들은 과학주의라 명명하였다.³⁾ 과학과 과학주의는 구분되어 사용되는 개념인데 과학이 지식이라면 과학주의는 과학적 지식을 신화화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주의와 여성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전된 논의가 없고 1960년대 과학기술 담론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잡지연구로는 통합된 주제별 연구보다는 각각 대상 잡지 연구가 토대연구 차원에서 진행되었다.⁴⁾ 『사상계』의 시민사회론과 젠더 인식의 관련성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한영현(2014)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 잡지의 젠더 인식을 분석한 본격적인 논문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이 후진국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물질적 근대화 경도되면서 당위론적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이 논의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시민사회론은 여성 역시도 구체적인 현실과 실태가 소거된 채 근대적 시민사회의 당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구적으로 호명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김복순(2013)은 기존 연구에서는 『사상계』를 1960년대의 잡지로만 보아 순수한 사상으로 근대를 전파하는 ‘민족적 저항지’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3) 황희숙, 「과학주의와 인문학의 재정위」, 대동철학 26집, 2004, 4쪽.

4) 연구사 검토는 저자와 출간년도만 표기하고 자세한 서지는 참고문헌에 표기하였다.

하며 1950년대를 중심으로 『사상계』를 다시 검토한다. 『사상계』는 순수 일반 교양지가 아니라 반공을 공고히 할 사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공로컬’ 잡지이며, 『사상계』는 근대화의 주체에서 여성-개인을 배제함으로써 여성을 ‘반공로컬’이자 성적 차별을 받는 ‘중복 로컬’로 재구획하였다고 보고 있다. 김양선(2013)은 젠더의 관점에서 『사상계』에 수록된 여성작가 소설과 여성 관련 담론(월평, 단평 등)을 분석하여 『사상계』가 문학적 의제 및 교양/지식담론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조사한다. 이 잡지는 195·60년대 현대문학의 특징을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여성 관련 담론은 빈약한 ‘비젠더적 매체’라고 평가하였다. 정혜경(2009)은 『사상계』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신인여성작가들이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규명하기 위해 구혜영과 박순녀 작품을 분석하였다. 안미영(2008)은 구혜영의 195,60년대 초기소설을 집중 분석하여 초기소설에는 계몽성과 감성이 착종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임지연(2006)은 『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1960년대 초반 새세대론과 청년담론의 구성양상을 파악한다.

사상계와 과학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상현(2013)은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과 기술의 표상을 분석한 이 논문에서 과학과 기술이 근대화의 핵심요체로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효율성과 급속한 속도, 변영의 상징으로 과학기술이 상상되면 정치적 물질적 힘으로서 과학과 기술이 인식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태호(2013)는 한국 과학기술계의 지형도를 보여주는 논문에서 사상계의 과학자들과 그들이 195,60년대 정치적 격변기를 따라 정치 권력과 결부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영경(2013)의 논문은 산아제한이 인구라는 사회적 몸을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사상계는 이러한 과학지식과 정치가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담론임을 밝히고 있다. 이 세 논문은 이번 연구의 과학주의와 국가적 통치성, 정치적 권력의 작동과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주의와 여성성을 연결시켜 담론적 경쟁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잡지 『사상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는 김건우(2003)의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과 사상계연구팀(2012)의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권보드래 외(2009),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등의 연구서가 있다. 본격적인 잡지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김건우의 연구에서는 냉전시대 사상계의 사상적 배경과 문학작품들의 실증적인 작업과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권보드래와 사상계연구팀의 연구서는 195,60년대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문화적 접근을 총체적으로 시도한 연구서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사상계』의 중심 담론이 과학주의였음을 밝히는 실증적인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 관련 기사와 여성작가의 문학작품을 연결지어 분석한다. 담론적 경쟁의 직접성을 분석하기 위해 논설, 평문, 수기, 기사 등을 분석하고 여성작가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여성성의 재배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그 외 탐방기, 번역기사, 독후감 등 다양한 장르로 제공되는 서구인물소개란, 서구적 과학 지식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사상계』는 민족, 민주, 평등 등의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여성 관련 담론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 잡지이다. 젠더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두 지적하는 것처럼 1960년대 지식사의 중심이면서 이처럼 여성담론에 무관심한 현상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담론에서 무엇이 말해지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침묵되는가 역시도 중요한 연구거리가 된다. 동시대 잡지인 여성교양지 『여원』에서는 과학적 합리성, 가정의 과학화라는 담론 등이 여성담론의 핵심이 되고 있어서 과학주의를 둘러싼 사상적 배치나 관련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성의 재구성과 『사상계』의 과학주의가 구성하는 과학적 합리성과의 관계에서 각 요소간의 배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이라는 신지식을 매개로 형성되는 여성성에 대한 분석은 자칫

단순한 결론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과학적 합리성=서구=남성성, 감성적 비이성성=한국=여성성이라는 이분법이 여성성 형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위계만들기 즉 제국주의 모방이자 식민화담론의 일종이다라는 기존 해석의 동어반복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남성성은 여성에 대한 계몽자의 위치에 섬으로써 제국주의적 남성성의 위치를 전유한다는 해석도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호미바바의 모방(mimicry)이론은 최현무 등의 한국문학 적용과 함께 탈식민이론으로 여성문학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남성주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위계만들기의 권력을 내포한다는 동질성을 분석해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한국의 담론적 특성에 대해서는 섬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국경을 넘는 순간 이론은 모방하면서 균열하는 새로운 문화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규정된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담론의 역동적 변화를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담론의 경쟁과정에서 지배담론으로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지, 어떤 내적 논리를 기반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성되는지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3. 사상계의 과학주의 - 민족 그리고 기술결정론

『사상계』는 민족적 자본주의를 주장하기도 한 1960년대 지성사를 대표하는 잡지이다. 이 잡지는 1952년 8월 당시 문교부 산하 국민사상연구원(원장 백낙준)의 기관지였던 『사상』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사상지』로 창간되어 통권 4호를 냈고, 잡지의 편집에 참여하였던 장준하가 1953년 4월에 인수하여 『사상계』라는 제호로 출간, 종합교양지로 발간되었다. 1970년 5월 중간 때까지 사상의 통일이나 자유민주주의, 반공정신 등을 강조하며 전시 하에 있는 지식인층의 사상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이 잡

지에서는 ‘기술민족주의’⁵⁾라 불릴 만한 국가주의적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사상계』는 1960년대 민족, 민주주의의 발전을 잡지의 기본 모토로 삼고 있는 사상지로서 민족국가 발전의 방법으로서 민주주의와 과학주의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다. 잡지의 주제어 검색으로도 민주(200건), 민족(187건), 과학(142건) 관련 기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여성으로 검색된 기사 6건, 가족 5건, 가정 5건에 비하면 이 잡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나마 가족은 산아제한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이고 산아제한 기사로 검색하면 16건이었다.⁶⁾ 가족이나 가정도 국가의 인구문제로 접근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⁷⁾

‘과학’이라는 주제어로 검색된 142건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특집이나 기획 제목을 제외한 실제 기사는 130건이다. 과학사 소개와 우주여행, 원자력, 의학, 과학과 신학 등의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과학적 인식과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학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 기사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일반적인 과학 기사로 과학사, 과학철학, 의학, 생물학 등 다양한 과학 지식의 소개이다. 이러한 과학지식 기사들은 과학적 인식론, 부국강병론 등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다. 둘째, 원자력 관련 글들이 다양

5) 유효근, 「국가개입의 정치경제:아시아 NIEs의 기술정책을 중심으로」, 경성대사회과학연구23집, 2007, “생산의 단순한 한 가지 요소로서 기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힘과 부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을 파악하며, 국가가 과학기술의 개발, 확산, 이전 등의 문제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으로 정의하고 있다.(62쪽)

6) 잡지 기사 검색은 동방미디어 『사상계』 영인본에서 주제어 검색으로 본 결과이다. 주요한 기사들은 한국여성문학학회 사상계세미나팀에서 함께 강독하고 확인하였다. 과학주의와 관련된 담론, 남성 주제/여성 주체의 구성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7)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1960년대 『사상계』 속의 정치적 상상과 통치의 한계」, 여성문학연구29호, 2013.

하게 실려 있다. 원자력이 제2의 불이라는 주장과 함께 원자로 도입으로 이어지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글들이다.⁸⁾ 원자력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원자로 도입에 반대하는 글 역시도 다수 실려 있다. 셋째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우주개발에 대한 글들이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개발에서 먼저 성공하면서 미소경쟁에서 민주진영이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학의 발달=국방력이라는 신념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의 과학연구는 공개적인데 소련은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우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냉전적 신념을 보여주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1960년대의 과학주의는 『사상계』에 한정된 이념적 특징이 아니라 근대화프로젝트의 핵심요소로 강조되었으며, 핵무기와 핵발전에 대한 열망과 함께 부국강병의 상징적 기호로 사용되었다. 장준하는 1955년 4월 발간의 목적을 밝히는 권두언에서 “현대화라는 것은 과학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문화가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이것이 우리 민족의 현대화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히면서 과학화를 민족 부흥의 방법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과학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민족이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개척정신이요 과학적 방법이라는 장준하의 『사상계』 권두언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1959.3)처럼 과학주의는 민족지성과 국가정책이 맞물리는 지점이었다.

우리가 애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와 직결되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애국은 감정이 아니고 「이념」이어야 하고 그 이념에 기초를 둔 설계이며 행동이어야 한다.-중략- 우리의 지도자들은 민족적 감정의 불길을 일으켰을망정 민중을 확고한

8) 전후 냉전체제의 수립과 원자탄이 갖는 상징성에 대한 분석은 공임순, 「원자탄을 둘러싼 한반도의 변화되는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43쪽 참조. 원자탄은 과학기술과 자본, 지식정보가 총집결된 문명의 상징이자 문명의 파멸의 징조로 여겨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념 위에 세워놓지는 못하였다. 언필칭 삼일정신을 운위하고 그 실천을 고려하나 이 정신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살아날 수 없을진대 역사적 유물은 될 지언정 우리의 지도이념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이 감정만으로 묶이워졌던 이 민족은 8·15와 더불어 급작스럽게 받아들여진 민주, 공산의 두 이념 속에 휩쓸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분할된 지역 속에서 불행한 분열과 대립상을 이루어 놓았다.-중략-그러면 무엇이 이 현실에서 우리로 가장 애국하게 하는 길이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족정기를 세우고 허트러진 사회 기준을 바로 잡는데 거족적인 노력을 기우리는 일이다. 여기에서 먼저 요청되는 것은 개척정신이고, 과학적 방법이다. 먼저 나서고 과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연후라야 우리가 바라는 이념의 태동을 볼 수 있고 나라 살림의 올바른 설계도 기대할 수 있으며 참다운 재건과 부흥도 이루어질 것이다.⁹⁾

이 글은 새로운 근대국가는 과학적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과학적 방법이란 ‘재건’ ‘개발’ ‘부흥’의 방법으로서 비합리성, 감성이 아닌 지성, 이성의 방법이었고, 감성으로부터의 이성의 독립을 의미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사회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척정신과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며,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의식으로 지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 외에 1962년의 권두언에서도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1962.7)이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과학적 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한다.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회-국가일수록 더 부강한 것 같다”는 선언적 진술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는 사주, 관상, 태몽 등 비과학적인 삶의 방식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관습을 비판한다. 그리고 “과학적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정한 법칙 하에 있는 몇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와 같은 인과관계로 세상만사가 설명된다는 태도”(30쪽)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합리적 추론과 인과론적 사고가 우리 정부의 경제정

9) 장준하, 「(권두언)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상계 1959.3, 14~15쪽.

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과학적인 전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부가 먼저 과학하여야” “국민은 과학하기 시작할 것이다”(31쪽)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잡지의 과학주의는 기술과학에 대한 지식과 과학적 인식론의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주로 『사상계』 주요 필진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은 과학적 사고, 인식론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사상계』 창간 5주년 기념 강연으로 개최된 제1회 과학진흥강연회(서울대학교, 1958.4.11.~12)의 내용도 과학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언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희의 「과학과 현대정치-과학을 지배하는 정치와 정치를 지배하는 과학」(1958.6) 윤세형, 「과학의 문화사적 의의」(1958.6) 두 글에서는 과학정신이 정치적 원시심리, 정치적 미신에 호소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후진성 역시도 과학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후진성은 문화적인 활동 그 자체의 빈곤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 우리 개인생활에 침투되어 있어야 하고 과학이 국민경제 향상의 자산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과학이 모든 예술가에게 풍요한 知의 원천이 되어야하고 과학이 모든 문화적 활동의 언어로서 또는 전달방법으로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오늘날의 문화사적 현실에서 우리 자신 뒤떨어져 있는 까닭에 우리가 문화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¹⁰⁾

이 글에서 드러나듯이 과학은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마술적 조력자로 상징되고 있으며, 과학적 합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 영역의 후진성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비상한 신념으로 발화되고 있다.

그 외의 글에서도 과학적 합리성, 인과적 사유가 감정, 불합리와 대립되는 새로운 사회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자주 등장한다. 좌담

10) 윤세형, 「과학의 문화사적 의의」, 사상계, 1958.6, 52쪽.

회「건전한 사회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1956.9)에서 유진오는 과학적 사고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인간생활이나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야만을 멀리하며 감정, 불합리, 비합리에 지배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팔봉은 “객관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배성룡은 「동양인의 인생관」(1953. 4)에서 동양적 정체성으로부터 근대의 후진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정체된 동양사회의 청빈하고 검약 자족적인 인간관을 ‘결함’/‘결핍’있는 인간관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새로운 인간관으로 “과학에 입각한 인간”(52쪽)을 제시하고 이를 계몽 교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를 여러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핵물질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새로운 세상에 희망을 줄 것이라는 G. 랜더스의 「새로운 과학자의 사명」(1957.7)이라는 글은 부국강병론의 과학기술론을 반영한 글이다. 과학의 발전은 2차세계대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원자력과 인공위성을 완성하여 인간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세계적 권위들에게 명일의 조망을 듣기 위해 ‘과학과 명일의 세계’라는 주제 하에 18편의 글을 실었다.(「과학과 명일의 세계’, 1958.1) 윤세형은 「국가와 과학」(1958.5)이라는 글에서 과학이 뒤떨어진 나라는 곧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이며 과학을 진흥케 하지 못한 정치는 잘못된 정치 또는 혁명치 못한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과학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력을 향상시키는 국민경제의 자본이 된다는 것이다. 1958년 6월에는 과학 특집으로 6편이 실렸고 그 중에서 이용희의 글 「과학과 현대정치 -과학을 지배하는 정치와 정치를 지배하는 과학」(1958.6)은 과학이 정치적 군사적 경쟁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과학은 국방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 - 일 국민의 복지, 생활의 향상, 혹은 사회 및 산업의 발달, 이런 것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과학이 이러한 다른 방면과의 관계 못지않게 또는 가일층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은 진리의 추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군사경쟁 때문이라는 주장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과학적 인식론이나 부국강병론의 주제와 달리 실제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사들도 다수 게재되었는데, 원자력에 대한 기사들과 인공위성을 둘러싼 미소의 우주전쟁 역시도 이 잡지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1959년 원자력원을 설립하고 서울대학교에 학과를 설치하는 등 실제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지지부진하던 원자로 사업을 1962년부터 본격화하는데,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시대를 열게 된다. 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우주전쟁, 군비경쟁 등은 이 시기 과학지식의 핵심으로 보이며, 부국강병과 냉전의 우위라는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

인공위성과 관련된 글에서는 1961년 4월 소련이 금성에 흑성간 스테이션을 발사하여 로켓 분야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 기사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다. 금성에 간 가가린 소련의 우주여행과 미국의 우주개발 전쟁이 단순히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켓기술과 군사력, 경제력과 세계에서 의 민주진영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냉전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만섭의 「우주과학의 오늘과 내일」(1961.10)에서는 미국의 인공위성 기술이 기후위성, 통신위성, 항해위성, 로켓 탐지 위성 등 인간 생활의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인공위성의 군사적 가치는 탐지 및 정찰용에 그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인공위성은 소련보다 인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며 소련처럼 인공위성을 우주탐험에 이용할 것인가 미국처럼 인간생활에 이용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기술 개발에서 앞서가는 소련보다 기술적 휴머니즘을 미국이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²⁾

11) 관련 기사로는 프리쉬(이시호 역), 「원자력」(1958.1) 이종진, 「원자력이용에 대한 전망」(1958.6) 육지수, 「원자력과 호황의 10년 - 60년대의 세계경기순환」(1960.3) 김중수, 「동력원의 현황과 개발 - 수력, 화력, 원자력이용」(1961.1) 백용균, 「원자력의 작물육성에 대한 이용」(1968.7) 원자력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글들과 달리 원자력의 위험성을 다루는 글들도 발표되고 있다. 이종진, 「원자력시대의 인간상」(1960.9) 이종진, 「원자력시대와 휴머니즘」(1961.10) 등이 있다.

『사상계』의 과학주의는 일종의 기술결정론으로 보인다. “기술은 사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전하며, 특정한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집단에게 공동의 선이 된다는 것”¹³⁾이다. 그러나 초기 과학주의자들의 기술결정론은 1980년대 미소군비경쟁과 과학기술 발전의 정치적 권력화를 보면서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 기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또한 기술이 사회를 형성한다는 관점이다.¹⁴⁾ 과학기술도 가치중립적인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 관련되어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핵무기의 경우 결정권자의 절대성 때문에 독재적 권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되는데¹⁵⁾ 1960년대 핵무기에 대한 한국 정책권자들의 열망과도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사상계』의 과학주의는 냉전의 논리나 부국강병론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기술결정론이라는 점에서 국가주의적 생산성담론과 맞물려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 이념이 될 때, 개인적 자유보다는 민족 공동체의 발전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전후 뜨겁게 분출

12) 인공위성 관련 기사로는 이원철, 「인공위성과 천문」(1958.6), 존레이, 「무진장의 공중자원-하늘에서 노다지를 파는 사람들」, 박배송 역, (1957.11), 신웅군, 「우주시대와 세계전략」(1959.1), 「쏘련의 우주스테이션」(1959.11), 「미국과 쏘련의 인공위성 경쟁」(1961.4) 「우주여행에 앞장 선 쏘련」(1961.5) 「미국의 인간로켓 발사성공」(1961.6), 김홍우, 최영두, 홍승면, 「우주여행성공이 의미하는 것-미소의 우주여행 성공을 보고서」(1961.6), 한탄섭, 「우주과학의 오늘과 내일」(1961.10), 이종수, 「텔스타라와 보스토크 3, 4호」(1962.9), 「우주종합경기에서 다시 득점-미 머큐리계획 완수로 쏘에 육박」(1963.6) 등이 있다.

13) 송성수 편역, 『우리에게 기술은 무엇인가』, 도서출판녹두, 1995, 15쪽.

14) 송성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위의 책, 28~43쪽. 기술결정론과 달리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과 사회적 형성론은 사회와 기술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관점이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 과학적 사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기술적 인공물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 과학과 기술의 구분을 거부하고 ‘기술과학’으로 개념화한다.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은 사회적 구성론과 달리 기술과 과학을 구분.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기술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기술 형성에 민주적 개입이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관점이다.

15) Donald MacKenzie and Judy Wajcman, 「무엇이 기술을 형성하는가」, 위의 책, 60쪽.

되었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욕망을 재규율화하는 문제는 당시의 주요한 화두의 하나였다. 『사상계』는 특히 민족을 중심 이념으로 삼으면서 자유를 재규율화하는 방향으로 담론들이 전개된다. 자유란 “인격이나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민족의 현실과 결부된 자유여야” 하며, “그것은 마치 민주주의의 목표는 민주주의에 있다고 하는 동의어 반복과 다를 것이 없”¹⁶⁾다는 논의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후진국에 이식되자 사대주의와 결부되어 반민족적, 반사회적인 매국적 이기주의를 형성¹⁷⁾하게 되었다는 논의들이 그러한 예라 하겠다.¹⁸⁾ 이러한 민족주의와 결합된 과학에 대한 신념이 기술민족주의로 전개될 때 『사상계』의 과학 담론은 성찰성을 잃고 국가주의적 생산성담론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담론과 결부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기술결정론이 가치의 위계를 계열화하는 과정을 남성성/여성성의 젠더 재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4.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 - 내면화된 젠더위계

잘 알려진 것처럼 『사상계』는 민족, 민주, 경제발전, 문화창조 등 민족주의 사상의 함양이 기본 방향이지만 신사상, 새로운 세계인식을 지향했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된 사상적 모색도 상당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제목에 여성이 들어간 글은 6편뿐이었고, 여성작가의 등단도 3명뿐이었다. 여성 관련 글들은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상,하)-여성문제 연구원창립을 기회로」(1953.5~6), H. H. 밀러, 「여성과 과학」(1958.1) 박영숙, 「【기행】 힌두의 나라 인도를 다녀보고 - 녀성이 본 인도」(1962.5),

16) 조가경, 「혁명주체의 사상적 흥미」, 사상계, 1961.4, 75쪽.

17) 권윤희, 「민족민주주의」, 사상계, 1962.5, 89쪽.

18) 이선옥, 「열광, 그 후의 침묵과 단절의 의미-4·19세대 여성작가」, 최원식 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300쪽.

이태영,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 2차대전 전후에 있어서의」(1963.3), 이효재, 「【해방20년기념씨리즈 ⑧】 여성의 사회진출 - 안방살이에서 사회전역으로」(1965.10) 등이 있다.¹⁹⁾

이태영과 이효재의 글은 여성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의 글이라 할 수 있으며, 『사상계』의 여성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글로는 김기석의 글이 유일하다.²⁰⁾ 김기석은 독재주의나 전체주의는 인간차별관에서 유래된 것인 반면에 민주주의는 인간평등관을 기초로 하며, 민주주의는 인간의 인격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 수호하는 주의라고 보고 있다.²¹⁾ 따라서 인간의 평등을 근거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남녀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평등주의에 대한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은 남성 또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자기와 남을 새로 건립, 발견하는 일이고 단순한 복수나 모방이 아닐 것입니다. 남녀평등이란 남성 또는 여성이 자기들을 바른 인간으로 자각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²²⁾라는 진솔처럼 남녀의 차이에 기반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을 유지하는 성역할론에 가깝다.

오늘의 사회가 남녀의 평등을 내세우거니와 이것이 주로 제도의 개변(改變)과 의문(儀文)의 논의에 흘러 형식적인 평면적인 남녀평등에 기울어지

19) 그 외 장경학 「결혼의 근대화」, 1958.12, 정양은, 「현대청년의 연애와 결혼」, 1963.3, 「미대생들의 성논쟁」, 1963.7, 소정자, 「북한남녀의 애정문제」, 1964.10, 「불란서여성애와 연애」, 1961.5, 「(좌담회)가정생활의 현대화」, 1960.4, 강성일, 「삼각산에서의 제야」, 1962.3, 안인희, 「同窓會餘滴」, 사상계111, 1962.9, 이장현, 「과속과 답보의 남녀평등」, 1968.12 등의 글이 여성과 직접 관련된 글들이다.

20) 김복순의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전문위원 김기석이 여성론을 펼치지만 이 역시도 보편적 주체를 남성으로 보는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사상계의 인간, 평등, 민주를 남성애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21)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상,하)-여성문제 연구원창립을 기회로」, 사상계, 1953.5, 41쪽.

22) 김기석, 위의 글, 1953.6, 94쪽.

는데 미쳐 하나의 새로운 남녀평등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이 여성에게 있었다고 하면 현재의 병폐는 여성상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손에 끌리는 노예가 되어도 안 되거니와 남성의 병신된 탈을 물려받는 초상이 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남성의 자리가 여성에게 맡겨진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과연 올라간 것이겠습니까. 만약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 사이의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하여 한때 여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여성의 지위의 제고가 아니고 도리어 그 저하일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겨누는 직업에 많이 진출되었다, 남성과 같은 자리 또 그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수효가 늘었다, 이 같은 단순한 곁에 나타난 숫자만을 가지고 남녀평등, 또는 여성해방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입니까. 여성이 직업에 있어서 남성과 겨루게 되고, 지위에 있어서 남성과 대등하게 된 것만도 확실히 향상이요, 전진이요, 그리고 통쾌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직업에 있어서의 진출과 지위에서의 대등이 반드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는 소이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접근이 여성 자신의 전복조차 가져오는 일이 없는 바 아닙니다.²³⁾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론 역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는다. 이 잡지의 주된 관심사는 보편적 주체로서의 민족, 민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근대적인 시민상이기 때문이다. “민족은 어디까지던지 민족이요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것입니다”²⁴⁾라는 진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성이 민족 혹은 인간으로 당위적으로 호명되지만 구체적인 여성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²⁵⁾ 보편적 주체를 설정하기 때문에 젠더에 관련된 논의가 거의 전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젠더 논의가 표층 담론에서는 전개되지 않지만 이 잡지에서 보편적 주

23) 김기석, 위의 글, 1953.6, 95쪽.

24) 김기석, 위의 글, 1953.5, 45쪽.

25) 한영현,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본 젠더 인식, 한국민족문화50, 2014, 141쪽.

체, 이상적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치와 여성성으로 구성되고 있는 가치의 계열을 분석해 보면, 내면적으로는 가치의 위계나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성의 젠더 구성에 대해서는 이 잡지의 신인 여성작가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해보면, 어떠한 성격적 요소들이 여성성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상계』 신인상으로 등단한 구혜영과 박순녀, 서영은의 작품들과 강신재, 손소희 등 여러 작품이 실린 작가들의 작품 경향과 평자들의 선자평 등을 살펴보면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난다. 김기석의 성역할론 즉 이성과 합리성으로 규정되는 남성성과 감성과 정서로 규정되는 여성성의 구분법이 단지 김기석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사상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혜영은 「안개는 거치고」(1955.7)로 창간2주년 기념당선작 가작에 입선했으며, 박순녀는 「외인촌 입구」(1964.11), 서영은은 「교」(1968.10)로 사상계신인상에 당선되었다. 수록된 여성작가 작품 39편은 다음과 같다. (재수록된 강경애 「마약」을 제외하면 38편이 수록되었다.)

작가	작품	수록년월	기타
최정희	인정	55.2	
구혜영	안개는 거치고	55.7	창간2주년 기념 당선작(가작입선)
구혜영	상록의 지층	56.6	
강경애	마약	56.7	재수록
전숙희	귀로	57.6	
한말숙	낙루부근	58.8	
손소희	어둠 속에서	58.10	
한무숙	그대로의 잠을	58.12	58년9월로 정리된 서지도 있으나 확인 결과 12월임
정연희	한뼉의 땅	59.8	
한말숙	장마	59.9	
구혜영	암초	59.9	

손소희	태풍	59.11	
박경리	해동여관의 미나	59.12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60.1	
정연희	어느 하늘 밑	60.5	
최정희	인간사	60.8~12	연재
손소희	다리를 건널 때	61.8	
한무숙	대열 속에서	61.11	100호특집문예특별증간호
구혜영	메기의 추억	61.11	100호특집문예특별증간호
한무숙	배역	62.11	
강신재	황량한 날의 동화	62.11	문예특별증간호
박순녀	아이러브유	62.11	
한말숙	이 하늘 밑	64.7	
김의정	사랑의 개가(凱歌)	64.7	
박순녀	외인촌 입구	64.11	신인문학상 입선 추천작
박경리	풍경(B)	64.12	
박순녀	임금의 귀	65.3	
박화성	팔전구기	65.11	
박경리	하루	65.11	
강신재	강물이 있는 풍경	65.12	
손소희	그 자매	66.4	
박순녀	단절	66.10	
구혜영	어떤 평일	67.6	
손소희	성곽 밖의 봄	68.5	
구혜영	은빛깔의 작은 새	68.6	
손장순	우울한 한강	68.6	
정연희	제 오(五)의 계절	68.7	
서영은	교(橋)	68.10	제10회사상계신인상입선작
구혜영	명희	69.8	

작가는 총 15명. 강경애 1편, 강신재 3편, 구혜영 7편, 김의정 1편, 박경리 3편, 박순녀 4편, 박화성 1편, 서영은 1편, 손소희 5편, 손장순 1편, 전숙희 1편, 정연희 3편, 최정희 2편, 한말숙 3편, 한무숙 3편이 실려 있다.

이중 『사상계』로 등단한 구혜영이 7편으로 가장 많고, 손소희, 박순녀 등의 순으로 실렸다.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김양선의 분류에 의하면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남성-청춘서사에 대한 비판 즉 허무와 냉소에 빠진 남성주인공과 대립되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여성이거나 여성-청춘서사의 주체로서 자유의 갈망을 그린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또 한 유형은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며 가부장적 억압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을 그린 작품들이다.²⁶⁾ 여성작가의 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들이 실린 기간도 길고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사상계』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을 살펴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의 우울과 무기력의 남성-청춘 표상과 대비되는 생기 있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여성들이 이 작품들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상계』를 중심으로 활동한 구혜영의 작품들은 청춘표상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의 추구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인간상이 이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남성성/여성성의 젠더 재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체 여성작가 작품에 대한 분석은 고를 달리 하여 추후에 좀 더 면밀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구혜영은 사상계의 여성작가를 말할 때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창간2주년 기념당선작 가작에 입선하여 등단했고, 7편의 작품을 『사상계』에 실어 여성작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가이다. 등단작인 「안개는 거치고」(1955.7)는 전후 청년들의 우울과 혼란을 다루는 문체작으로 감상, 우울, 허무, 감정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작품에는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남자주인공 이진수를 짝사랑하는 다방 추화의 종업원 이순우와 이진수의 약혼녀 강수옥, 그리고 이진수가 사랑하게 되는 최문경이 그들이다. 이 작품은 독특하게 이순우의 수기와 최문경의 편지 등을 통해 이진수의 성격을 관찰하고 초점화하고

26) 김양선,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 - 『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145~150쪽.

있다. 행위 자체가 소거된 이진수라는 인물의 무기력함을 두드러지게 하는 서술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순우의 관찰수기에 의하면 그는 허무한 목소리와 푸른 눈동자를 지녔으며, 그에게는 젊고 고운 강수옥이라는 약혼자가 있다. 이진수는 껍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의 처세술일 뿐이며, 그는 “노여울 때 노하지 않고 분할 때 화내지 않는”(38쪽) 체념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인생의 모든 기대에 배반당한 나머지 기대에 대한 기능을 부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사실일게다. 그는 확실히 강수옥에 대하여도 별로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39쪽)는 인물묘사가 이어진다. 속물성을 드러내는 인물인 강수옥은 이진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열망이나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인물이다. 이순우 역시도 소극적이고 우울과 허무에 빠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진수의 무기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 반면에 최문경은 백화점 점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지만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생생한 욕망과 자기 삶에 의지를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 여자의 추상적이 아닌 관은 모다 현실생활에 사고와 행동의 표준이 되며 그것은 또한 움직일 수 없는 뜨거운 신념으로써 그 여자의 성실과 감격을 북돋아 주는 것 같다. 기계가 가진 정확성과 인간정신의 가능성을 그 여자처럼 익숙하게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53쪽)이라는 서술로 최문경이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술에 취한 이진수를 구해주기도 하고, 불이 난 그의 자취방에서 살림살이를 끌어내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최문경의 적극성에 이진수도 감정이 있는 인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최문경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이성적이면서 열정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사상계』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이 투사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여성 인물들은 다양한 감정의 계열체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후의 허무주의와 냉소에 균열을 내고 욕망이 있는 인간, 생기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갈망은 구혜영 작품의 여성-청년서사의 중심을 이루

고 있다. 유부남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상록의 지층」(1956.6), 「암초」(1959.9), 「메기의 추억」(1961.11) 모두 여성주인공들은 자신의 사랑과 욕망에 적극적인 인물들이다. ‘생기’는 이 인물들의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상록의 지층」의 순실은 “영롱하리만큼 해맑은 눈빛. 그 거리낌 없이 용솟는 웃음. 해바라기처럼 풍성스런 표정”(298쪽)으로 자신의 사랑을 향해 돌진한다.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살아난 그녀를 보며, “서로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은 다시 찬연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310쪽)이라는 생의 실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꽃이피리를 마구 주어서 입속에 뵙고 다니려”(370쪽) 야성적인 성격의 의정은 「암초」의 여주인공이다. 그녀는 알콜중독의 폐인인 유부남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저는 모든 상식적인 실사회적 법규에 저항하고 있습니다.”(372쪽)라고 말하는 그녀는 “어쩐지 술에 타고 비쩍 마르고 땀물이 흐르는 와이셔츠바람으로 동굴 속처럼 허무한 눈을 우두머니 뜨고 앉아 있는 그”(372쪽)에게 공포에 가까운 이끌림을 느끼고 그를 다시 생으로 끌어내려 한다. 어둠, 데카당에 끌리는 청춘이 그러한 어둠과 대적해나가는 청춘서사라 볼 수 있다. 「메기의 추억」에 등장하는 수란은 앞의 두 인물들과는 달리 자살로 끝을 맺는다. 독립운동가인 김동진을 남성인물로 설정해서 전쟁기의 좌우대립과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두 남녀의 후경으로 삼고 있다. 그 때문에 전후의 데카당한 인물들의 내면심리에 집중하는 서사보다는 거칠게 사건위주의 회고가 주를 이룬다. 수란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녀의 사후에 주변 인물들의 회고에 의해 재구성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의 성격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자신의 사랑에 무모할 정도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고모부인 김동진을 사랑하는 그녀는 독립운동을 함께 나서기도 하고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좌익운동에 투신하기도 한다.

다른 두 작품 역시도 자신의 사랑과 욕망에 솔직한 여성인물들이 등장한다. 「은빛갈의 작은 새」(1968.6)는 여성의 성욕을 상징하는 제목으로 여성이 자신의 성욕에 눈뜨게 되는 내용이 솔직하게 묘사된 작품이다. 세

번째 결혼인 남편과 초혼인 아내가 주인공인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 정요는 점차 사랑이 식어가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불안하고 외로워진다. 그녀는 은빛갈의 새의 환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빛과 어둠으로 된 새의 환각은 그녀의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방황하는 주인공의 내적 심리를 따라 읽게 되는 서술방식이 두드러진다. “정요의 전신에서 열락의 잔물결이 일제히 일며 기복하는 파류상으로 정요의 어두운 자궁 속으로 와이하고 소리내며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299쪽)는 표현이 여성인물의 욕망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명희』(1969.8)는 해방둥이 고아인 명희의 이야기이다. 나는 친구 ㄴ의 그림 속에서 한 누드화를 보게 된다. 명희와의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국인 양부에 의존해 살면서 허무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인물이다. 누드모델을 자처한 그녀는 누드화를 자신의 양부에게 팔아 ㄴ에게 대금을 치른다. 양부와의 모호한 관계, 자살하고 싶어 하지만 그 또한 용기가 없는 명희. 다양한 청년 초상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월부인생, 빛으로 살아가는 셸러리맨의 비애를 다룬 소품 『어떤 평일』(1967.6)을 제외하면, 구혜영의 작품들은 생의 욕망이 강하고 타나토스, 죽음의 욕망과 맞서는 여성 인물들이 주인공들이다. 초기작의 계몽성이 후기작에서는 사라지는 차이가 보이지만 구혜영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모두 사랑으로 여성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현실에 대한 불안과 연민, 우울과 허무 등의 부정적 감정과 싸워나가는 야성에 가까운 생기와 발랄함이 이 인물들이 보여주는 성격이다.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 모두 여성의 운명이고 이러한 운명과 맞서 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사상계』의 여성성 배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데카당한 허무주의에 빠진 남성 주체 대신 생기와 생의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감정의 세계를 여성성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작가의 작품으로는 첫 작품으로 실린 최정희의 『인정』, 대중적으로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등의 작품도 섬세한 여성의 감수성을 다룬 작품들이다. 전후 처녀가장의 비애를 다룬 전숙희의 『귀로』,

한말숙의 「낙루부근」, 정연희의 「어느 하늘 밑」 등도 삶의 불안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성들의 감정들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기쁨이나 슬픔, 불안과 우울 등의 감정의 세계를 여성성의 성격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개는 거치고」의 이진수처럼 아무 것에도 감정을 느끼지 못 하는 허무주의적 주체 대신 모든 삶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여성이 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허무주의적 주체인 남성 인물들이 『사상계』 남성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무와 무기력에 빠진 지식인 주체의 자기각성을 서사화²⁷⁾한 많은 작품들이 우울증적 주체로서 전후의 청년-남성주체의 좌절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청년-남성주체의 서사와 여성주체의 서사는 과학주의 담론 하에서의 젠더의 재배치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남성 우울증적 주체는 과학주의 담론에 등장하는 이성적 합리적 주체라는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전반기를 거치는 기간 동안 이 두 남성 주체는 혼돈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동양인에게는 과학에 입각한 ‘인간’을 먼저 인식케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사람이라는 기둥이 확호히 선 뒤에 이상이 굳어질 수 있고 올바른 인생관도 서게 되며 과거를 검토하고 현재를 파악하며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인생의 실무기준도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동양 후진 사회에 있어서는 늘 계몽과 교양이 일체에 앞선다 하는 바이어니와 결국 자아인식운동을 강력히 일으킴으로써 일체 문화건설의 토대를 삼고 불확실한 인생관이 엄정 확호한 것으로 고쳐짐에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허무한 경우에서 맹랑, 모색, 황혹하는 실망적 낙담적인 인간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²⁸⁾

27)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176쪽.

28) 배성룡, 「동양인의 인생관」, 사상계, 1953 4, 52쪽.

배성룡의 주장처럼 과학적 사고에 입각한 합리적 주체는 허무맹랑한 모색이나 불안으로부터 인간을 구해줄 것이라는 신념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성과 합리성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전후 현실의 남성성은 더욱 불안해지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이성으로 무장할수록 현실 남성주체의 우울증은 깊어지게 된다. 물론 『사상계』는 50년대 후반을 거쳐 6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이고 하나의 잡지가 단성적 목소리로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이 담론적 경쟁을 통해 지배담론으로 형성되는가를 살펴본다면²⁹⁾ 이 잡지는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으로 무장한 담론과 우울증적 남성 주체가 중심이 되는 서사의 투쟁에서 과학적 합리성이 지배담론으로 점차 부상하는 담론적 특징을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등의 실존주의 문학이 보여준 우울증적 남성주체의 합리주의 철학에 대한 거부, 거대 세계에 맞선 단독자의 실존에 대한 탐색이 점차 냉전의 논리와 과학주의적 합리성으로 포섭되어가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이후 196,70년대 기술민족주의는 특히 급속한 근대화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감정을 배제한 도구적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기여한다.³⁰⁾ 이러한 기계적 남성성을 합리화하고 이상화할 수 있었던 사상적 출발점을 『사상계』의 기술결정론, 기술민족주의에서 발견할

29) 푸코는 「정치학과 담론」라는 논문에서 대상(objects), 작동(operations), 개념(concepts), 이론적 옵션(theoretical options)을 중심 요소로 분석하여 줄임과 내포, 일반화, 대상사이의 위치전환, 대립항 사이의 우위가 바뀌는 변화, 종속소의 변화, 배제와 포함 등을 추적해보면 담론 구성이 바뀌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방법은 실제 담론 연구에서 지배담론이 육체로 재해석되고 위치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Graham Burchell ect. edit,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The Univ. of Chicaco Press, 1991, 56 쪽 참조)

30) 196,70년대 드라마의 남성주인공은 과묵하고 무표정한 회색 양복의 산업전사가 주를 이룬다. 박정희 프로젝트의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이 만든 젠더 이분법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근대화와 산업전사를 맡는 남성과 급변하는 개발의 불안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줄 정신으로서의 모성(신사임당)으로 양분된 젠더 배치가 이 시기의 특징으로 자리잡는다.(김은실, 타니 바로우, 팬짓 두아라 등의 견해 참조)

수 있다. 도구적 남성성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만이 아니라 기쁨이나 슬픔 같은 정상적인 감정까지 배제되는 이성으로 무장한 기계적 남성성이어서 감정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선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여성성의 배치가 감정에 대한 과잉된 인물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이상화된 도구적 남성성과의 배치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5. 마무리말

1960년대 과학주의 담론의 특징을 『사상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술민족주의라 명명할 수 있는 민족주의와 기술결정론이 결합된 이념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과학기술 담론은 핵무기, 핵연료 등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술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 때문에 선진국을 과학적 세계와 동일시하고 한국문화를 열등화하는 쉐임컬처 만들기가 진행된다. 근대화담론 중에서 과학주의가 절대화되는 이유는 근대화가 서구화, 민족부흥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진화론, 우생학, 기술민족주의 등 각 시대마다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과학주의는 부국강병과 민족의 근대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띄고 논의되었다. 그 때문에 과학주의담론은 지배담론의 전면적 재배치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젠더의 남성성/여성성 요소 사이의 위치 변화나 배제와 내포 등등 담론의 변화에서 정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주의 담론은 급속한 국가프로젝트로 속화된 기술민족주의와 맞물리면서 이상적 인간상을 기계적 남성성으로 만들어내는 생산성담

31) 이선옥, 『과학주의 시대 - 여성혐오라는 정동』, 여성문학연구36호, 2015, 177쪽.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혐오와 남성성의 감정에 대한 배제에 대해서는 마사 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233~291쪽, 에바 일루스,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90~126쪽 참조.

론으로 변화해간다. 이러한 기계적 남성성은 철저히 감정과 분리된 이성
과 합리성으로 구성되어, 여성적 감정에 대한 혐오와 선망의 양가적 문화
를 재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196, 70년대 남성작가들 작품에 나타난
근대적인 남성 우울 주체에 대한 원인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계적 남성주체의 생산성담론은 이후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여성
혐오주의와도 관련된 부분이다. 이처럼 기계적 남성성과 감정 과잉된 여
성성으로 이분화된 젠더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1960년대이며 이
를 강화하는 이념이 과학주의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획일화된 가치가 인간소외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 또한 이루
어졌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남성성, 특히 생산성 담론의 기계적 남성성이
왜 한국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일상을 통해 개인의 신체를 통해 기계적이고 이
성적인 남성성이 구성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고 위계적 사회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과학
주의는 별개의 개념이다. 과학이 사실에 대한 지식이라면 과학주의는 과
학적 지식을 신화화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결정론과 기술민족
주의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과학주의의 특성을 말해주는 개념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신화화된 믿음을 구성한다. 한국의 과학주의에 대한 연
구는 과학에 대한 신화화가 기계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구성해왔음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17쪽.
-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262쪽.
-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176쪽.
- 루쓰 코완,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김성희 외 역, 신정, 1997, 177쪽.
- R.W. 코넬, 『남성성/들』, 안상옥 · 현민 역, 이매진, 2013, 69쪽.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박홍규 역, 강원대출판부, 1993, 185쪽.
- 사상계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27~72쪽.
- 송성수 편역,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녹두, 1995, 15쪽.
- 최원식 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2, 300쪽.
-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331~332쪽.
- Graham Burchell et. edit,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The Univ. of Chicaco Press, 1991, 56쪽.
- Homik. Bhabha,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86쪽.

2. 논문

-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73~125쪽.
- 김상현, 「사상계와 과학·기술 담론~1950~60년대 한국의 사회기술적 상상」,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년 봄학술대회 자료집.
- 김양선,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 - 『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127~163쪽.
- 김태호, 「1950년대 한국 과학기술계의 지형도」,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37~69쪽.

- 박진희,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현대기술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학회강연, 강좌자료, 2005, 53~64쪽.
-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공과 지식의 정치-1960년대 『사상계』 속의 정치적 상상과 통치의 한계」,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7~36쪽.
- 안미영, 「계몽성과 감성이 착종된 세대의 의의와 한계-구혜영 초기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 425~456쪽.
- 유호근, 「국가개입의 정치경제:아시아 NIEs의 기술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집 2호, 2007, 55~75쪽.
- 이선미, 「1950년대 젠더 인식의 보수화 과정과 ‘왈순아지매’-『여원』 만화의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호, 2009, 161~201쪽.
- 이선옥, 「『여원』의 중심 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호, 2008., 337~369쪽.
- 이선옥, 「과학주의 시대 - 여성혐오라는 정동」, 여성문학연구 36호, 2015, 91~116쪽.
- 이선옥,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나는 코리안의 아내』: 195, 60년대 국제결혼 담론」, 국어국문학, 2013, 519~542쪽.
- 임지연,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6, 2006, 211~240쪽.
- 정혜경, 「『사상계』 등단 신인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009, 579~609쪽.
- 한영현,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본 젠더 인식」, 한국민족문화 50, 2014, 123~154쪽.
- 황희숙, 「과학주의와 인문학의 재정위」, 대동철학 26집, 2004, 1~19쪽.

3. 첨부 자료

<사상계 과학기사 목록>-‘과학’이라는 주제어로 총 142건으로 검색됨(특집
이나 기획 제목을 제외한 실제 기사는 130건)

필자	제목	수록년월	기타
----	----	------	----

백낙준, 「한국의 교육·과학·문화 - 1952年 파리 「유네스코」 총회 개최연설」,
2호, 1953. 5.

박익수, 「모순의 통일성 - 과학적 논리의 전개」, 7호, 1953. 11.

김덕준, 「사회사업의 과학적 고찰」, 7호, 1953.11.

해리 포워드, 「과학과 신학」, 13호, 1954.8.

존 터어키 빗지, 「쏘련 과학의 진출」, 13호, 1954.8.

권영대, 「과학하는 심상」, 23호, 1955.6.

윤일선, 「학생과 과학」, 23호, 1955.6.

김준섭, 「지성의 방향 - 화이트헤드의 과학철학」, 33호, 1956.4.

부리쥬먼, 「과학과 미래의 전망」, 39호, 1956.10.

권영대, 「연재교양-과학사 ① - 고대와 르네상스의 과학」, 43호, 1957.2.

J.R.오펜하이머 (이철주 역), 「과학과 현대」, 44호, 1957.3.

권영대, 「연재교양-과학사 ② - 과학의 세기」, 44호, 1957.3.

권영대, 「연재교양-과학사 ③ - 20세기의 과학」, 45호, 1957.4.

권영대, 「연재교양-과학사 ④ - 원자력시대」, 46호, 1957.5.

「비중이 커가는 과학자의 위치 - 오펜하이머 등의 경우」, 47호, 1957.6.

G. 랜더스, 「새로운 과학자의 사명」, 48호, 1957.7.

E.W.시닛 (이상봉 역), 「과학과 인간정신」, 52호, 1957.11.

김용권, 「I.A.리차즈의 비평과 그 방법(상) - <과학과 시>를 중심으로」, 52
호, 1957.11.

김용권, 「I.A.리차즈의 비평과 그 방법(하) - <과학과 시>를 중심으로」, 53
호, 1957.12.

【특집】 과학과 명일의 세계 54호 (1958년1월)

- A.H.콕프튼 (이시호 역), 「인간의 자유」
O.프리쉬 (이시호 역), 「원자력」
I.B.코헨 (이시호 역), 「경이의 세기」
L.N.라이드나워 (이시호 역), 「항공」
S.B.헨드릭스 (김만기 역), 「생명」
E.P.커어티스 (양홍모 역), 「공중교통」
F.K.W.노오트스타인 (편집부 역), 「끓어지는 백성」
E.M.위킨, 「변이와 진화」
E.쟁가, 「우주여행 - (1) 시간」
W.R.브류스타 (박송배 역), 「우주여행 - (2) 공간」
H.하우 (석향 역), 「우주여행 - (3) 숙제」
H.오디쇼 (이철주 역), 「인공위성」
H.H.밀리, 「여성과 과학」
R.스티븐즈 (주여래 역), 「생활문화」
D.A.쉐퍼드 (박명찬 역), 「자연자원」
H.게르쉬노비쯔 (홍봉룡 역), 「창조」
「움직이는 세계」 우주시대의 신전략 - 서방의 과학력 총집 결과 방위기구
의 통합」, 1958.1.
이종진, 「생명의 본질은 과연 구명될 것인가? - 과학적 사고 방식을 중심으로」, 1958.2.
I.B.코헨 (주여래 역), 「【지식의 전선】 자연에 관한 상상 - 과학사연구의
의의」, 1958.3.
윤세원, 「국가와 과학」, 1958.5.
【특집】 과학 (1958년6월)
이용희, 「과학과 현대정치 - 과학을 지배하는 정치와 정치를 지배하는 과학」
윤세원, 「과학의 문화사적 의의」
이종진, 「원자력 이용에 대한 전망」
이원철, 「인공위성과 천문」

- 기용숙, 「인명의 과학」
- 김동일, 「한국의 공업과 기술의 현황 - 주로 기술자 대책에 관하여」
- 이중진, 「과학과 생활 ①- 식생활의 과학」, 1958.7.
- 이중진, 「과학과 생활 - 인체와 세균과 약」, 1958.7.
- 유기천, 「【연구】 한국문화와 형사책임 - 법률학의 과학적 방법의 한 적용」, 1958.9.
- 권순영, 「범죄예방책의 과학화 - 범죄와 세상」, 1958.9.
- 이중진, 「생활과 과학 ③ - 태양에너지」, 1958.9.
- 홍이섭, 「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추이 - 그 단층 「근대와의 괴리」의 사적 특유(緣由)」, 1958.10.
- 강영선, 「과학교실 - 암의 과학」, 1958.11.
- 전종취, 「과학·비과학」, 1958.11. [수필임]
- 이길상, 「근검과 과학의 나라 - 독일의 인상」, 1958.12.
- 이중진, 「행복과 번영의 과학 - 고분자화합물·항생물질·오토메이슨」, 1959.1.
- 한준택, 「【과학교실】 방사선과 인체」, 1959.1.
- 한구동, 「【과학교실】 약 이야기」, 1959.3.
- 정낙은, 「【과학교실】 원자력의 장래 - 구미의 원자력 발전과 한국의 실정」, 1959.4.
- 김경식, 「【과학교실】 결핵에 관해서」, 1959.5.
- 서명원, 「【과학교실】 문화인의 정신위생」, 1959.6.
- 최신해, 「【과학교실】 노이로오제」, 1959.7.
- 김석찬, 「【과학교실】 술의 공과」, 1959.8.
- 이중진, 「【과학교실】 바이타민」, 1959.9.
- 김동일, 「【과학교실】 원자력과 연료」, 1959.10.
- 심상철, 「【과학교실】 방사능과 작물개량」, 1959.11.
- 김하태, 「과학과 인간 - 과학적 휴머니즘의 딜레마」, 1959.12.
- 이길상, 「【과학교실】 연금술의 석금 - No 원소 이야기」, 1960.2.

- 서석조, 「【과학해설】 간질병」, 1960.5.
- 김하태, 「과학과 현대 신비주의」, 1960.8.
- 【특집】 20세기의 과학과 인간 (1960년9월)
- 권영대, 「인간사고능력과 현대물리학」
- 이중진, 「원자력시대의 인간상」
- 강영선, 「동서진영의 유전학」
- 권영대, 「과학자와 요술」, 1961.2.
- 이혜양, 「W. 하계만 저 과학으로서의 푸블리찌스틱」, 1961.2.
- 【특집】 가치체계의 과학적 인식 (1962년5월)
- 김하태, 「통일적 가치체계의 설정」
- 김근희, 「과학기업」, 1962.4. (수필)
- 「읽을 만한 두 가지의 과학서적 - 『과학위인전』, 『우주로 가는 길』」,
1962.5.
- 「【권두언】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 1962.7.
- 「【파이오니어 그룹】 하늘을 응시하는 젊은 과학도군」, 1962.8.
- 김윤경, 「【선구자의 회상 ⑧】 주시경 선생 - 과학적 국어학의 앞잡이」,
1962.8.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흑의의 여인과 정찰위성 - 개발되는 새로운 정찰 비행체」, 1962.10.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가공할 수중이동기지 - 유도탄장과 대장장」,
1962.11.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전자계산기와 인공두뇌 - 지금은 인간대용 품시대」, 1963.1.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망상을 현실화시키는 과학의 힘 - 올 플라 스틱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1963.2.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생명의 신비를 푸는 열쇠 - 핵산과 단백질 에의 도전」, 1963.3.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태양에너지 이용에의 길 - 그 풍부한 빈광

- 은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 1963.4.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바다는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 - 아직도 이
용여지 많은 무진장의 보고」, 1963.6.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이적 효력 - 과학기술
분야에서 갖가지 기적을 실현」, 1963.7.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미래세계의 인공식량 - 아무도 안 굶을 때
가 올 것인가?」, 1963.8.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스피드시대의 도로 - 외국에선 수퍼 하이
웨이가 사통팔달」, 1963.9.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이젠 트랜지스터도 너무 크다 - 막이 오른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시대」, 1963.10.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새로운 주택설계제안 - 팽창하는 인구와
주택난해결을 위하여」, 1963.11.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암은 정복될 것인가? - 아직은 조기발견만
이 살 수 있는 길」, 1963.12.
- 이중수, 「【상식인의 과학메모】 보이지 않는 살인가스 - 연탄을 완전 연소
시킬 수는 없다」, 1964.1.
- 【특집】 과학세기의 전망 (1965년 1월)
- 버틀랜드 러셀, 「양자택 - 시대의 전쟁과 사회 - 과학이 사회에 미친 영향
과 인류생존의 길」
- A. 지크프리트, 「기술문명의 방향 - 기술 · 교양 · 문명 관계」
- 김준섭, 「전후과학관의 발전 - 존망의 위기에서 창조적 사관을」
- 이만갑, 「과학세기의 인간관계 - 과학적인 조직과 획일을 탈피하려는 인간
존재」
- 이중수, 「한국과학기술의 전망 - 과학기술개발에 지름길 없다」
- 조사부, 「미 · 쏘의 과학정책비판 - 핵 균형의 대결은 곧 과학의 싸움이다」
(자료)
- 「과학전의 기현상」, 1965.11. (문화시평)

- 안세희, 「평범한 모습의 오펜하이머」, 1965.11. (과학자)
- 안인길, 「【현대문학시리즈 (현대작가의 문제와 상황 ⑥) 현대문학과 과학 시대 - 전후독문학과 원자문명을 중심으로」, 1965.11.
- Dr. H. S. Olcott Dr. M. B. Shaefer (권태완 옮김), 「【과학】 바다에서 나오는 식량」, 1966.5.
- 시드니 후크 (박상규 옮김), 「「자본론」100주년의 맑스주의(상) -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신화로」, 1967.2.
- 시드니 후크 (박상규 옮김), 「「자본론」100주년의 맑스주의(하) -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신화로」, 1967.5.
- 권태완, 「【과학】 식품첨가물의 필요성과 안전도 - The Necessity and Safety of Food Additives」, 1967.6.
-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①) (1968년 1월)
- 한만춘, 「인간공학」
- 김재관, 「우주개발」
-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②) (1968년 2월)
- 한용철, 「내과의학의 발달」
- 민병철, 「외과의학의 발달」
- 정우국, 윤동석, 차균희, 「【한국학의 형성과 그 개발 ②(정답)】 한국의 과학」, 1968.3.
-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③) (1968년 3월)
- 최상, 「해양학(상)」
- 김성삼, 「기상학」
-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④) (1968년 4월)
- 최상, 「해양학(하)」
-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⑤) (1968년 5월)
- 현정준, 「천문학 - 물질의 역사」
- 감상돈, 「물리학」
- 이종각, 「트랜지스터에 대한 과학 상식」, 1968.5.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⑥) (1968년 6월)

김근희, 「레이저광선의 신비」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⑦) (1968년 7월)

백룡균, 「원자력의 작물육성에 대한 이용」

조완규, 「*② 문화활동의 암증모색* 과학기술교육 및 정책」, 1968.8.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⑦) (1968년 8월)

오현의, 「전자기술의 제2혁명 I.C.」

아이작 아시모프 (편집부 역), 「【속·미래학론고】 금후 1세기 - 다음 세기가 가져올 사태에 대한 과학적 측정」, 1968.10.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⑦) (1968년 10월)

강만식, 「생명체의 동결」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⑩) (1968년 11월)

현정준, 「미·소우주경쟁 - 미국의 아폴로 계획과 소련의 존드 5호를 중심으로」

김상일, 「비평의 과학과 사이버네틱스」, 1968.11.

【특집】 과학(지식의 경이 ⑪) (1968년 12월)

박인원, 「단백질의 생합성」

이종구, 「현대를 초극할 과학과 철학 - 사상의 빈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1970.5.

소홍렬, 「과학시대의 새로운 도전」, 1970.5.

<사상계 가족 관련 기사>-주제어 검색에서 10건 수필 등 문학작품을 빼고 5건

필자	제목	수록년월	기타
----	----	------	----

이해영, 「마리온·J·레비저 「근대중국의 가족혁명」」, 63호 1958.10. (북·레뷰)

이만갑, 「가족관념과 산아제한」, 97호, 1961.8.

조향록, 「산아제한 반대론의 반박 - 가족계획은 절대 필요하다」, 137호, 1964.8.

이만갑, 「한국에서의 가족계획 - 인구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무엇?」, 139호, 1964.10.

안토니 지머맨 (안철구 역), 「【특별기고】 합리적인 가족계획을 - 조향록씨의 「산아제한 반대론반박」에 대하여」, 141호, 1964.12.

<사상계 가정 관련기사>-주제어 검색으로 7건 검색, 문학작품 빼고 5건

필자	제목	수록년월	기타
----	----	------	----

「무너지는 가정생활」, 66호, 1959.1.

최이순, 이효재, 정태섭, 이만갑, 「【좌담회】 가정생활의 현대화」, 81호, 1960.4.

권순영, 「가정법원의 설치를 요망한다」, 105호, 1962.3.

류성, 「가정부화의 유행병 TV」, 106호, 1962.4.

전영창, 「학생생활의 단면 가정교사 봄의 이면 - 젊은 별들의 고민을 취재한다」, 126호, 1963.10.

<사상계 여성 관련 기사>-주제어 검색으로 6건 검색

필자	제목	수록년월	기타
----	----	------	----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 - 여성문제 연구원창립을 기회로」, 2호, 1953. 5.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하) - 여성문제 연구원 창립을 기회로」. 3호, 1953.6.

H.H.밀러, 「여성과 과학」, 54호, 1958.1.

박영숙, 「【기행】 힌두의 나라 인도를 다녀보고 - 여성이 본 인도」107호, 1962.5.

이태영,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 2차대전 전후에 있어서의」, 119호,

1963.3.

이효재, 「【해방20년기념 시리즈 ⑧】 여성의 사회진출 - 안방살이에서 사회전역으로」, 152호, 1965.10.

<산아제한> 주제어로 16건 검색-기획기사 표제 3건을 빼고 실제 기사는 13건

필자	제목	수록년월	기타
----	----	------	----

- 「(움직이는 세계)중공의 산아제한」, 1956. 10.
 고험경, 「산아제한의 국가적의의」, 1960.4.
 【특집】 산아제한과 종교 (1960년 7월)
 서석태, 「천주의 법과 산아제한」
 강원룡, 「하나님의 말씀과 산아조절」
 【특집】 산아조절의 의학 (1960년 8월)
 박재빈, 「산아조절의 의학」
 A. F. 가트매커 (편집실 역), 「인구조절을 위한 정제(錠劑)」
 【특집】 긴급한 산아제한운동 (1961년 8월)
 박재빈, 「폭발선상의 한국인구」
 이만갑, 「가족 관념과 산아제한」
 강주심, 「수태조절의 방법과 입법조치」
 고험경, 「외국의 산아제한실태」
 이선환, 「제한론의 문제점」, 1961.11.
 조향록, 「산아제한 반대론의 반박 - 가족계획은 절대필요하다」, 1964. 8.
 안토니 지머맨 (안철구 역), 「【특별기고】 합리적인 가족계획을 - 조향록씨의 「산아제한 반대론반박」에 대하여」, 1964.12.

Abstract

Research on Discourse of Scientism and Gender in 1960s Magazine 『Sasanggye』

Lee, Sun-Ok

This study analyzes the ideological feature of 『Sasanggye』, the magazine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history of Korean intelligence in 1960s, as scientism. And then it explores how scientism reframes gender; a link between scientism and the reconstruction of gender. Most of the studies on 1960s have been centered on the cold war and militarism or the Saemaul Undong(the campaign to booster productivity by reforming the whole country) and the productivity discourse. While intensively analyzing the productivity discourse of Park Junghee's Project to follow after the speedy modernization, the study extracts scientism from the values that it uses as essential ideology. The scientism at that time, that can be prescribed as the technology nationalism, functions as a magic helper for enhancing the wealth and military strength of a country. In addition, it holds such views about technology determination that technology will be good for everyone. The technology determination was criticized by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that criticized the arms race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it mentions that not only is technology constructed socially, but it forms society. The technology determination was emphasized as the key factor in the modernization project rather than the ideological feature limited to 『

『Sasanggye』, and used as the symbolic mark of enhancing the wealth and military strength of a country with longing for nuclear weapon and nuclear development. Jang Junha argues in the frontispiece of 『Sasanggye』 that the factor required for our people's survival is a pioneering spirit and scientific method. As his words, scientism is the point that national intelligence and national policy are so intertwined. As scientism moved forward in the secularized technology nationalism, the speedy national project, it is changed into the productivity discourse; we take it for granted the mechanical man is the ideal man. There have so far been many studies on hegemony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lots of analyses which the value of man-woman dichotomy would obstruct human diversity. It, however, is judged that there is a lack of contemplating the reason why the mechanical man in the productivity discourse becomes hegemony masculinity in Korean society. 『Sasanggye』 prescribes that an ideal human is a scientific human. So needless to say, women should be a rational and scientific human, given that he is a universal human as well. The construction of gender internalized in the magazine, which can be called asexual media without any specific mention about women, holds conventional perception of sex role.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Kim Kisuk, an expert advisor of 『Sasanggye』 or women's writings included in the magazine, it can be founded out that over-emotion rather than intelligence is prescribed as femininity. For the dichotomy of mechanical masculinity and over-emotional femininity its reason will be comprehended by scientism discourse. Science and scientism are distinct concept. While science is knowledge reflecting a fact, scientism is an ideology mythifying

scientific knowledge. The mythic faith of scientific technology contributes to productive human rather than reflection on human. For that very reason, it shows that the construction of gender in 『Sasanggye』 has two types of human; mechanical masculinity and over-emotional femininity.

Key words : 1960s, Sasanggye, Scientism, Technology Nationalism, Gender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